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 요셉 성월 · 사순 제2주일
제34권 16호(가해) 2014·3·16

[묵상]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웃음
빛처럼
하얗졌다.
...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
하지마라.”

베드로 사도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고통과 죽음,
갈등과 도전을 잃어버린 안일함과 순진,
나약함의 적나라한 표현이다.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른다.

아픔, 슬픔, 힘듦, 어려움을 외면하고
근심 걱정 없는 곳에 편안하게 안주하자고.

힘든 가정, 어려운 사회,
십자가를 버리고 떠나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
힘들고 어려운 바로 지금, 이곳,
십자가의 자리가 곧 부활의 자리임을 말이다.

왜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모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을까?

고통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 헤메이는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제시해 준 것과 같다.

십자가를 외면하고는 부활을 맞을 수 없다.

사순절!!

부활절의 또 다른 이름이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저녁 미사(사순시기)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6:00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만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매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권순봉 요안나, 이인순, 성세근 요셉, 김순덕 안나 (생)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안나 가정
주 일 낮 미사	(연)고준희 제임스, 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전시웅 요한, 김영수 테레사, 이용식 베드로, 주리희 요셉, 남정규, 남건우, 이정원 니콜라오, 이병찬 & 확득주, 주용범 아브라함 (생)김소연 프란체스카, 현시영 요셉, 오영실 테레사, 오일순 헬레나 & 이영희 카타리나 & 한춘선 루시아, 김교지미 가정, 김순희 모니카, 김어거스턴 가정, 이근모 마리오 & 이행자 리드비나, 엄혜은 도로테아, 김은 안나, 토런스 북구역 가정, 요셉회 회원, 자모회 임원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창세기(Genesis) 12,1-4

화답송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흠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제 2독서 티모데오 2서(2 Timothy) 1,8-10

복 음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환호송 찬미받으소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복 음 마태오(Matthew) 17,1-9

영성체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57	154	157
봉헌	나의 영혼이 잠잠히	270	264
성체	Above All	289	106
파견	418	157	103

올바른 성모신심

제4장 잘못된 성모 공경

(2) 가톨릭 교회 안에서 빛나간 성모 신심들

다. 베이사이드의 성모 신심

(이는 1970년부터 미국 베이사이드의 베로니카 루에켄을 중심으로 일어난 신심 운동에 관련한 내용이다.)

일명 ‘미카엘회’ 라고도 불리는 이 운동은 미국 뉴욕의 평범한 가정주부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 부인은 1970년 4월 7일 자신에게 발현한 성모님께서 뉴욕 시의 베이사이드 힐즈에 있는 유서깊은 성 로버트 멜라민 성당의 광장에서 가톨릭 교회의 대축일전날 밤 철야 묵주기도를 바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며, 그자리에 당신의 작은 경당을 세우고, 그 이름을 ‘모든 어머니들의 도움이신 우리 로사리오의 성모 마리아’ 라고 부를 것을 원하셨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이 운동은 1995년 그녀가 사망하기까지 계속되었으며, 그 추종자들은 그의 사후에도 예수님과 성모님의 메시지와 기적들을 담은 신문 형식의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로사리오’, ‘베이사이드, 미국의 루르드’ 라는 이름으로 유인물이 배포된 바 있다. 발현 메시지들의 대부분은 지구의 멸망, 죽음과 심판, 인류에게 떨어질 크나큰 고통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주요 메시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루치펠이 1971년 1월 21일 너희의 시로 잠입했다. 그는 올바니시(뉴욕 주의 주도, 최초로 낙태를 허용한 도시)에서 어린 영혼을 도살할 악마의 계획을 수행하였다.”(1971)

- “성자를 깨물지 말아라. 너희는 성자를 모욕해서는 안된다.”(1974.6.8.).

- “나의 자녀들아, 미사 동안에 모든 여인은 미사보를 하여야 한다. 영성체의 경건함과 신성함을 위해서는 모두가 성자를 돕는 천사들이 되어야 하기에 필요한 것이다.”(1978.7.15.)

- “성령을 찾겠다는 비밀 모임은 사탄의 왕국으로 끌고 가고 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신의 집 밖으로 몰려 나가고 있는지 나의 딸아, 너희가 ‘성령 세미나’라고 부르는 것은 주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1977.5.28.)

-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다. 갈색 스카폴라를 착용하는 자는 절대 지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1979.8.14.)

- “성체는 오직 성직자만이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여자는 절대 안 된다. 오직 성직자만이, 베드로의 진실된 후계자만이 성자의 몸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1979.11.20.)

- “성자의 몸인 성체를 손으로 받아 영하지 말아라.”(1981.5.31.)

- “나의 자녀들아 통조림을 식량으로 모을 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과 친지들에게 밀폐된 용기 속에 담요와 물을 준비하도록 알려주어라. 엄청난 징벌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오염되어 아무 것도 살 수 없고, 쓸 수 없게 될 것이다.”(1985.7.1.) <◆계속>

타볼 산에 오른 제자, 겔세마니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기쁨 체험의 아름다운 소리만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축복의 기도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겪는 것처럼, 하느님의 자녀들에게도 시련이 닥치고 힘겨운 상황들이 비껴가지 않고 마주 옵니다. 어떤 때는 위로조차해 줄 수 없을 만큼 큰 짐을 지고 계신 분 앞에서 할 말이 딱 막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순시기를 살면서 더욱 크게 느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마태 17,1)고 전합니다. 높은 산이 헤르몬 산인지 타볼 산인지 정확히 않아도, 최소 해발 600미터 정도의 타볼 산은 될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마태 17,2)

그곳에서 제자들은 주님 영광의 모습에 취해서인지 평생 머물고 싶은 마음에 집까지 짓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산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지요.

묘하게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겔세마니에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그 피땀 흘리는 처참한 순간에도 역시 세제자 “베드로와 제베대오의 두 아들을 데리고”(마태 26,37) 함께 하십니다. 겔세마니 동산에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세 제자의 이름만이 거론되었는지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가신 것은 바로 앞 복음 말씀에서(마태 16,13-19)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로서 당연한 것이고,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충애를 받은 제자였기에 당연한 것이고, 야고보는 44년 전에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

로 주님을 증거하였으니(사도 12,1-2)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서는 같은 사람 셋을 아주 상반된 두 장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좀 억지스러운 생각일지 모르지만, 타볼에 올랐으면 겔세마니에도 올라야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은 좋은 시간, 나쁜 시간을 나누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한다고 하면 나 역시 두려움의 어떤 시간도 영광의 시간처럼 그분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암흑의 시간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느껴야 합니다. 물론 타볼 산이 겔세마니보다 훨씬(?) 높다는 것도 위안으로 삼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본 모습을 이미 타볼 산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겔세마니에 있다 하더라도 타볼 산에서 하셨던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마태 17,7)라고 하신 말씀을 가슴으로 생생히 기억합시다.

◆강귀석 신부 / 서울대교구 명일동성당 주임

전설에 의하면 성모님도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셨다면서요?

전설에 의하면 성모 마리아께서도 예수님 승천 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함께 자주 이 길을 걸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도 자주 이 길을 찾아 그분을 생각하고, 흠모하며, 눈물로써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오늘날의 ‘십자가의 길’ 기도와 같은 구체적인 형태나 기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14-15세기 경부터입니다.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사벳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아영 아가다	정광미 프란체스카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서용숙 에스텔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十 사순시기 十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7:30) 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아침미사가 저녁미사(오후 7시30분)로 변경되며, 미사후 전신자가 참여해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진행은 제단체가 맡습니다.

- 사순 제2주간 금요일(3월21일) : 소공동체
- 사순 제3주간 금요일(3월28일) : 요셉회
- 사순 제4주간 금요일(4월4일) : 양업회
- 사순 제5주간 금요일(4월11일) : 대전회
- 성 금요일(4월18일 오후 3시) : 본당 신부님

◆ 부활 합동 판공성사 : 4월9일(수)

- 참회예절 : 오후 7시 저녁미사 중
- 고해성사 :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애공봉투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4월17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사순 특강 I, II

- **특강 I** 강사 : 심원택 토마스 신부님(부산교구)
- 주제 :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 일시 : 3월16일(주일) 오후 1시, 성전
- **특강 II** 강사 : 이동진 바오로 신부님(오순절 평화의 마을)
- 주제 : 꿈, Dream, Cum
- 일시 : 3월19일(수) 저녁미사후, 성전
3월23일(주일) 오후 1시, 성전
- 2차헌금 : 23일 주일미사(특전미사포함)
오순절 평화의 마을 돕기

◆ 요셉회 장수 사진 촬영 안내

- 일시 : 3월30(주일) 낮미사후 12시30분
- 장소 : 강당
- 촬영봉사자 : 한장환 안토니오
- 메이크업 봉사자 :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요셉회 월례회 : 예정대로 3째주일에 합니다.
- 연락처 : 정기은 비오 요셉회장 ☎(310)780-2789

◆ 레지오 마리아 아치에스 행사

- 일시 : 3월30(주일) 오후 1시30분 성전
- 대상 : 레지오 마리아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
- 문의 : 남성철 베네딕도 꾸리아단장 ☎(310)408-1443

◆ 예비자 교리반 모집 안내

을 성탄절 세례를 준비하는 새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주변에 아직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이웃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 모집 및 전교기간 : 3월~4월30일
- 환영식 : 4월27일(주일) 낮미사후 강당
- 교리시간 : 5월1일~12월18일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분~9시10분, 2층 교리실
- 세례식 : 12월21일(주일)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양업회, 한국학교 지원 음식판매 감사드립니다.

3월첫주일에 가진 양업회 음식판매에 적극 참여해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익금 \$1,577을 한국학교에 전달했습니다. 또 익명의 자매의 정성과 많은 분들께서 기도로 한국학교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3월16일(주일) : 토런스 서 2반(웰빙시대기국 \$3)
*주일학교(킨더가든 김치찌개참치+햄)
- 3월23일(주일) : 토런스 남 2,3반(콩나물비빔밥 \$3)
*주일학교(10학년 치킨케사디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권태만	김기정	김대우	김상규	김옥보	김옥찬
	김정순	김정화	김 준	김현숙	남성철	노혜숙
	민기남	민성원	민찬기	박주현	배기엽	송영미
	신정훈	안재만	오명섭	오세원	오수인	우영희
	이귀분	이미경	이민상	이상곤	이상석	이인석
	이일길	이재철	이효세	임 순	전정자	정규숙
	정남형	정명모	정열모	정지숙	조소영	주용순
	최미열	최의수	한장환	한혁수	황인종	황지영
	이크리스					
	합계 : \$4,305					
주일미사 헌금 : \$2,692						
성전헌금	권태만	김구해	김기정	김대우	김정희	김 준
	김현숙	남성철	노혜숙	민기남	박주현	신정훈
	안재만	오세원	오수인	이귀분	이미경	이민상
	이상곤	이상석	이인석	이효세	임 순	정규숙
	정남형	정열모	정지숙	주용순	최미열	한장환
	한혁수	황인종	황지영	이크리스		
	합사헌금 : \$200(박아래네, 이인석)					
	합계 : \$2,465					
주보광고후원 : \$1,500(감사합니다.)						

공지사항

◆ 주일학교 '십자가의 길'(야외14처) 스케줄

- 오늘주일(16일) : 중등부
- 3월23일 : 고등부 ● 3월30일 : 5,6학년
- 4월6일 : 유치부, 1, 2 학년

◆ 주일학교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 제목 : 루카복음(영어), 노트 제공
- 대상 : 3학년~12학년
- 필사마감 : 4월13일까지 담당 교리교사에게 제출
- 시상 : 부활대축일 미사중(4월20일)

◆ 중등부 사순 피정

- 일시 : 3월21일(금)~23일(주일)
- 장소 : Oak Glen 크리스천 컨퍼런스센터(39364 Oak Glen Rd. Yucaipa, CA 92399 웹사이트 : www.oakglen.org)
- 대상 : 7학년~8학년 * 참가비 : \$60
- 준비물 : 성경, 묵주, 슬리핑백, 채킷, 세면도구, 학교티셔츠
- 문의 : 남스텔라 중등부 교무주임 ☎(310)918-3324

◆ 고등부 사순 피정

- 일시 : 3월28일(금)~30일(주일)
- 장소 : Oak Glen 크리스천 컨퍼런스센터(39364 Oak Glen Rd. Yucaipa, CA 92399 웹사이트 : www.oakglen.org)
- 대상 : 9학년~12학년
- 참가비 : \$60
- 준비물 : 성경, 묵주, 슬리핑백, 채킷, 세면도구, 학교티셔츠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고등부 교무주임 ☎(310)709-3343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제 73차 남가주 한인M.E. 첫 주말 신청받습니다.

- 일시 : 5월2일(금)~4일(주일) 2박3일
- 장소 : 샌퍼난도 소재 아시시 피정센터
- 수강비 : 부부당 \$400(숙박 및 식사비 포함)
- 신청마감 : 4월22일(화)
- 접수 : 백삼위 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바오로 & 병옥 율리아 ☎(310)780-9055

◆ 성모님을 통한 예수님게의 봉헌 및 봉헌경신미사

- 일시 : 3월25일(화) 오후 7시
- 미사집전 : 박대덕 스테파노 신부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미주평의회 지도신부)
- 장소 : LA 성 바실 한인천주교회 본당(637 S. Kingsley Dr.)
- 대상 : 전신자 *준비물 : 묵주, 성가책

◆ 미국영화 '하느님의 아들'(Son of God) 한글자막 상영

- 할인티켓 : \$7(본당 사무실에 비치), 3월27일(목)까지
- 상영극장 : Gardena Cinema(14948 Crenshaw Bl.)

소공동체 3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김광자 엘리사벳 988-9925 3/15(주일)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신중철 아브라함 936-9202 3/8(토) 오후 7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3/14(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이우성 요셉 793-0915 3/15(토) 오후 6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박상원 야고보 999-5808 3/15(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정정현 배데딕다 995-6342 3/14(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3/21(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피아데레사 951-4710 3/11(화) 오전 11시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3/8(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박정희 마리아 800-3709 3/10(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조소영 수산나 804-7645 3/9(주일) 오후 5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송재훈 필립보 213-700-6983 3/8(토) 오후 7시
	2	김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배진영 프란치스코 482-9108 3/15(토)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정광영 레오 818-1799 3/14(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메스 617-3568	이은미 가브리엘라 617-3588 3/11(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

“일어나 비추어라” ... 프란치스코 교황, 8월14-18일 한국 방문

교황청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강우일 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교들의 초청을 받아들여, 대전교구에서 치러지는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하시교자 2014년 8월 14일(목)부터 18일(월)까지 대한민국에 교황 사목방문을 행하



실 것”이라고 3월 10일 오후 8시(로마 시각 정오)에 발표했다. 이번 교황 방한은 “일어나 비추어라”(이사야서 60,1)를 주제로 이뤄진다.

교황 성하는 2014년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대전교구 지역(대전, 충남)에서 열리는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AYD: Asian Youth Day)에 참석하여 아시아 젊은이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미사를 봉헌한다.

또한 청주교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행려인 공동체인 ‘꽃동네’를 방문하여 장애아동 등을 만날 예정이다.

교황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1984년 한국천주교 200주년과 103위 시복식을 거행한 첫 방한, 1989년 제44차 세계성체대회에 즈음한 두 번째 방한에 이어 25년 만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아시아 청년들과 함께 기도

현대에 들어 교황들은 세계 곳곳을 사목방문하며 시대의 징표를 드러내 왔다. 교황이 방문하는 곳, 방문지에서 행하는 연설이 곧 세계인에게 보내는 시대의 화두가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은 ‘아시아 청년대회’(Asia Youth Day, 약칭 AYD)를 격려하는 의미가 크다. ‘아시아 청년대회’는 지난 2013년 7월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 청년대회’와 궤를 같이하는 아시아 가톨릭 젊은이들의 신앙 집회로서, 여러 국가의 가톨릭 청년과 주교단이 모이는 국제 행사다. 교황의 ‘아시아 청년대회’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아시아 대륙의 신자들을 폭넓게 만나 함께 기도하며 영적으로 동반한다는 의미가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젊은 시절 동방 선교에 마음이 끌려 예수회를 지망했고, 예수회 창립 멤버이자 ‘선교의 수호자’로 세계 교회에서 공경받는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를 본받아 일본 선교를 꿈꾸기도 했다.

아시아 복음화의 주춧돌 역할 당부

교황 방한이 이뤄지는 2014년은 한국 교회에도 의미가 각별하다.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124위 순교자 시복식이 열리는 해일 뿐 아니라,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사목회의’ 30주년이자 103위 순교 성인(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시성 30주년의 해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진리를 찾아 나섰으며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언한 선조들의 삶을 본받고, 21세기 현대 사회에 새롭게 적응하며 세상에 기여해야 할 교회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교황 방한 추진 경과

교황 방한은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재위 때부터 추진되어 왔다. 일찍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아시아 교회 방문을 적극 검토하고 있었으나, 2013년 2월 고령과 건강의 이유로 사임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13년 3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하면서, 2014년 8월 아시아 청년대회 기간에 교황이 한국을 찾는 계획이 급물살을 탔다. 2013년 말 교황청과 한국 주교회의를 통해 방문 계획이 구체화됐고 교황 방한과 124위 순교자 시복식 준비위원회가 꾸려졌다. 교황 방한 준비위원장은 강우일 주교가, 집행위원장은 조규만 서울대교구 보좌주교가 맡기로 했다.

<자료 :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교황 성하의 한국방문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황 성하께서 아시아 청년들과 대한민국 신자를 기억하여 멀리 우리나라에 오심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추기경 서임 때 교황 성하께서 한국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직접 전해주신 것에 이어 실제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로 결정하신 것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느낍니다.

교황 성하의 방문은 우리나라의 큰 기쁨이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교황 성하의 방문이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시아 전체에 주님의 평화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이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